

로·마·자 표·기·법·의  
음·성·학·적 실·상·과 어·상  
이 현·복

필자는 "말소리" 제5호의 머리말 <뿌리깊고 국적있는 언어정책을 바란다. -로마자 표기는 현행대로 지켜야 >에서 근태에 와서 우리나라의 로마자 표기법이 혼돈을 거듭하고 있음을 통탄하고 하루속히 통일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글말 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구나 1959년에 제정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4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공식 로마자 표기법으로 보급, 정착된 이른바, 문교부 안이 엄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요즈음 도로명을 미국식(먹콘 라이샤우어 표기법)으로 바꾸어 표기함으로써 오늘날 전국의 지명, 도로명 따위는 동일한 명칭이 소관 부처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이며 자주 독립국가의 체통에 금이 가는 부끄러운 일인가! 더구나 미국안은 한국어의 음성 음운 체계에 역행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표기법이어서 한국어의 발음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실제로 극심한 의미의 혼란을 빚어내므로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비해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의 체계에 맞는 표

기법이며 한국어의 발음 표기 능력도 우수하므로 마땅히 이를 계속 지켜 나가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며 국가 이익에도 일치한다고 본다.

이제 현행안과 미국안의 장단점을 자음을 중심으로 음성학적으로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미국안은 한국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우수하다는 일부 주장의 실상과 허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한국어와 영어의 파열음 및 파찰음의 소리 방향 비교

로마자 표기법을 정할 때에 숙고하여야 할 점은 먼저 한국어의 음성 음운적 특성을 밝히고 이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로마자를 택하는 일이다. 로마자의 음가란 원래 로마자를 사용하는 유럽의 여러 언어에서 각 글자가 공통적으로 갖는 소리 값을 뜻하는 것이나, 그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언어는 국제어적 지위에 있는 영어이므로 여기서는 주로 영어에서 로마자가 갖는 소리 값을 살펴 보기로 한다.

표1은 한국어의  $b d g j, p t k ch$ 와 영어의  $b d g j, p t k ch$ 가 주로 어두에서 날때의 소리 방향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어와 영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의 소리 방향은 성, 기식, 세기면에서 볼 때  $b d g j$ 는 영어의  $b d g j$ 에 대응하고  $p t k ch$ 는 영어의  $p t k ch$ 에 대응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한국어의  $b d g j$ 이 어두에서는 무성으로 난다는 부분적인 현상만을 중시하여  $b d g j$ 를 영어의  $p t k ch$ 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b d g j$ 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볼 수는

표 1. 한국어와 영어 파열/파찰음의 소리 바탕 비교

	1	2	3	4
바탕	ㅂ ㄷ ㄱ ㅈ	<i>b d g j</i>	ㅍ ㅌ ㅋ ㅊ	<i>p t k ch</i>
성	- / (+)	+ / (-)	-	-
기식	(+)/-	-	+	+
세기	-	-	+	+
(완)급	-	-	-	+

없다. 물론 ㅂ ㄷ ㄱ ㅈ이 어두에서 무성으로 나는 것은 사실이나 무성성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소리 바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ㅂ ㄷ ㄱ ㅈ와 ㅍ ㅌ ㅋ ㅊ을 구별하는 중요한 소리 바탕은 성보다는 기식의 유무와 소리의 세기의 정도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ㅂ ㄷ ㄱ ㅈ는 대단히 여리게 조음되는 특성이 있어서 *b d g j*에 대응시킬 수 밖에 없는 소리이다.

표1에서 1열의 성표사가 -/(+)로 된것은 어두에서 무성이나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으로 남을 표시하며, 2열의 성표사가 +/(-)로 된것은 영어의 *b d g j*가 비록 유성으로 난다하나 어두와 어말에서는 부분적으로, 또는 때에 따라서는 완전히 무성화 함을 나타낸다. 또한 1열의 기식표사 (+)/-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어의 ㅂ ㄷ ㄱ ㅈ가 초성으로 날 때에 경미한 기식을 지닌다고 (+)하나 음은 대립으로 볼 때에 완전한 기식음인 ㅍ ㅌ ㅋ ㅊ에 비하면 기식이 없는(-) 소리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에 한국어의 ㅂ ㄷ ㄱ ㅈ와 영어의 *b d g j*는 음성학적으로 동일한 소리 바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의 3열과 4열은 한국어의 프크츠이 영어의 p t k ch 에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표1의 소리 방향중에서 "(안)굽"은 해당 소리들이 종성으로 쓰일 때의 특성을 보이는데, 1열, 2열, 3열의 소리들은 음절말에 올때에 끝맺는 모양이 4열의 경우처럼 굽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굽"은 영어의 cap, cat, take 에서 처럼 끝에 오는 무성자음 p t k 의 영향으로 그 앞의 모음이 짧게나마 전체적으로 굽하게 끝나는 효과를 줌을 뜻한다. 반면에 "-굽"은 모음의 단축이 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완만한 효과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성으로 나는 우리말의 바드거과 프크츠은 종성의 bdgj 에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2. 음성/음소적 특성과 로마자 기호의 선택

위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파열음 및 파찰음의 소리 방향을 비교한 결과 음성학적으로 바드거은 bdgj 에 대응하고 프크츠은 p t k ch 에 대응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로마자 적기에서 한국어 발음을 정밀하게 전달 재생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바드거은 bdgj 로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표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드을 d로 트을 t로 적기 때문에 소리 방향의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종성의 위치에서도 d를 대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음성학적으로 합당하며 외국인이 로마자 표기를 읽을 경우 한국어의 원음에 가까운 발음 재생을 보장하여 줄 뿐 아니라 음운론적으로도 별개의 음소인 드과 트을 d 와 트로 명쾌하게 갈라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만은 우리말

표 2. 음성/음소적 특성과 파열음의 로마자 표기

음성	음소	M-R	현행안	학술원	IPA	IPA (Lee)
$\varepsilon / t^h$	$\varepsilon / th$	$t'$	$t$	$t$	$th$	$th$
$\varepsilon / \overset{\circ}{d}$	$\left( \varepsilon / d \right)$	$t$	$\left( d \right)$	$\left( d(-t) \right)$	$t'$	$\left( d \right)$
$\varepsilon / d$	$\left( \varepsilon / d \right)$	$d$	$\left( d \right)$	$\left( d \right)$	$d$	$\left( d \right)$
$\varepsilon / t$	$\varepsilon / t$	$tt$	$dd$	$dd$	$t$	$t$
$\varepsilon / \overset{\circ}{d}$ <small>중성</small>	$\varepsilon / d$		$d$	$t$	$t$	$t$

을 적기에 부족한 로마자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안은 음성학적 소리 바탕의 관점에서 어긋남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적어도 파열음과 파찰음에 있어서는 우리말 발음의 재생, 전달 능력이 빈약하다. 뿐만 아니라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 음소인  $\varepsilon$ 을 할일없이  $t$ 와  $d$ 로 갈라 적는, 불필요한 복잡성을 보이는가 하면, 별개의 음소이므로 별도의 기호로 반드시 갈라 적어야 할  $\varepsilon$ 과  $\varepsilon$ 을  $t$ 로 통일하여 적기 때문에 이론상 불합리하며 실제로도 중대한 의미의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호의 경제성에 있어서도 대단히 불리하다.

결국 미국안은 한국어 발음의 정밀한 표기, 전달 및 재생에 목표를 둔 음성학적 관점을 표방하고 있으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음성 지식에만 집착하였을 뿐,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음성 특성과 아울러 음운론적인 바탕을 소홀히 한 결과, 한국어 발음의 표기 전달 및 재생 능력도 빈약할 뿐 아니라 별개의 음소를 하나로 혼동시키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안이 되고 만 것이다.

### 3. 로마자 표기와 외래어 표기의 상관 관계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은 표리의 양면성을 지니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과 이미 로마자로 적혀 있는 외래어를 한국어로 적는 방법에는 일관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의 b d g j 를 우리말의 *ㅂ ㄷ ㄱ ㅈ*으로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한국인의 음성 인식 방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리 바탕에 있어서 *ㅂ ㄷ ㄱ ㅈ*이 영어의 b d g j 에 대응함을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또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소리바탕의 토대위에서 한국인은 *ㅍ ㅌ ㅋ ㅊ* 을 p t k ch로 적게 되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boy와 point 는 "보이" 와 "포인트"로 적고 Dennis, tennis 는 "데니스", "테니스"로, guard, card 는 "가드", "카드"로, Jane, chain 은 "제인", "체인"으로 구별하여 표기하게 된다. 그런데 미국안은 *ㅂ ㄷ ㄱ ㅈ* 을 p t k ch로 적으니, 이를 따르다면 point 는 "보인드", tennis 는 "데니스", card는 "가드", chain 은 "제인"으로 대응시켜야 하는 혼란과 모순을 빚게 된다.

우리는 로마자 표기법의 음성학적 허상에서 한시바삐 깨어나서 그 실상을 직시해야 하겠다. 그리고 더 우월한 대안이 없는 한, 이미 널리 정착 보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의 체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현행안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용기와 슬기와 문화적 자주성을 과시해야 하겠다.

## &lt; 참 고 문 헌 &gt;

- 김 선 기 (1977)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연구". 서울 언어과학연구원.
- 김 기 중 (1980) "한글의 로마자 표기 통일에 관한 일고". 아세아 학보 제 14 집 별책. 아세아 학술 연구회.
- 문 교 부 (197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
- 이 현 복 (197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의 문제점". "말" 제 4 집. 연세대학교.
- \_\_\_\_\_ (1981)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말 소 리" 제 3 호. 대한음성학회.
- \_\_\_\_\_ (1982) "뿌리깊고 국적있는 언어 정책을 바란다" -로마자 표기는 현행대로 지켜야 -. "말 소 리" 제 5 호. 대한음성학회.
- 정 인 섭 (1973) 국어 음성학 연구. 휘문출판사.
- 유 네 스 코 한국위원회 (1982) Korea Journal.  
(로마자 표기법 특집)
- 문 교 부 (1959)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 라이샤우어 에드윈 (1980) "머큐-라이샤우어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사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음성언어학 교수>